

The Easter Story – as told by Jaime Riggs

March 27, 2026

Thank you to Eunsil Cho for this Korean translation



Hello, Friendship! My name is Jaime Riggs. My husband, Travis, and I have been married for 21 years, and we have 5 children. ALL BOYS! Yes, our house is loud and active! I am glad to be able to be here in person with you, since we were just online for our story of Christmas. Hopefully, you were able to listen to that story, but just in case, here's a reminder: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제이미 릭스입니다. 제 남편 트래비스와 저는 결혼한 지 21년 되었고, 아들만 다섯 명이 있습니다. 네, 저희 집은 아주 시끄럽고 활기차답니다!

지난번 크리스마스 이야기 때는 온라인으로 만났는데, 오늘은 이렇게 직접 만나서 기쁩니다. 혹시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 잠깐 다시 이야기해볼게요.



Mary was a young Jewish girl who was engaged to be married to a man named Joseph. One day, while she was alone, the Bible tells us that an angel appeared to her! The word angel means “messenger”.

마리아는 요셉이라는 남자와 결혼하기로 약속된 젊은 유대인 소녀였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혼자 있을 때, 성경에 따르면 한 천사가 그녀에게 나타났습니다!
“천사”라는 단어는 “메신저(전달자)”라는 뜻입니다.

The angel told her that she was very favored by God and that He had chosen her to carry His son. And this was not just any baby; it was the Savior of the world! Mary must have been shocked! Mary wondered how all of this could be. How could she be pregnant? She was only engaged and a virgin. The angel told her not to worry, that God's Spirit would move and do a miracle.

천사는 마리아에게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잉태하도록 그녀를 선택하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기는 평범한 아기가 아니라, 세상의 구원자였습니다! 마리아는 분명히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이 어떻게 가능한지 궁금해했습니다. 어떻게 자신이 임신할 수 있을까요? 그녀는 단지 약혼한 상태였고, 처녀였습니다. 천사는 그녀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하며,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여 기적을 이루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God also sent an angel to her soon-to-be husband to tell him the news as well. The angel told Joseph to take Mary as his wife, and he obeyed God. Soon after, Mary did become pregnant by the Spirit of God, and she began to carry this son, whom the angel had said should be named Jesus, which means God is salvation!

하나님은 마리아의 곧 남편이 될 요셉에게도 천사를 보내 이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천사는 요셉에게 마리아를 아내로 맞으라고 했고, 그는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마리아는 하나님의 영으로 임신하게 되었고, 천사가 말한 대로 이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게 되었는데,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구원입니다”입니다.



The Bible says that Mary birthed the baby, named him Jesus, wrapped him in cloths, and laid him in an animal's feeding trough, which is called a manger.

성경은 마리아가 아기를 낳아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짓고, 천으로 싸서 동물의 먹이통인 구유에 눕혔다고 말합니다.

We celebrate the special day that God sent His Son to be born into the world on December 25th each year. And we don't just give it one day. We celebrate it for a whole season! The Christmas Season. It's that special!

우리는 매년 12월 25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이 특별한 날을 기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날을 하루만 기념하지 않습니다. 한 시즌 전체를 기념합니다! 바로 크리스마스 시즌입니다. 그만큼 특별한 날입니다!



The story of the birth of Jesus is a story filled with wonder, mystery, angels, courage, danger, and suffering. It is, most importantly, a story of Hope. It's a story that tells of God's great love for us. He was willing to send His Son to earth, to be born as a lowly baby, to live a sinless life, and later die in our place. And that leads us to what we are going to talk about today.

The Easter story.

Just like the story of Christ's birth, this story is filled with wonder, mystery, angels, courage, danger, and suffering. It is also, most importantly, a story of Hope. It's a story that tells of God's great love for us.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놀라움, 신비, 천사, 용기, 위험, 그리고 고난으로 가득 찬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낮고 겸손한 아기로 태어나게 하시고, 죄 없는 삶을 살게 하셨으며, 나중에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려는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부활절 이야기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처럼, 이 이야기 역시 놀라움, 신비, 천사, 용기, 위험, 그리고 고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이 또한 무엇보다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Most of Jesus' first 30 years of life are not recorded for us, but we do know about the last three years before his death.

The Bible tells us that Jesus taught about God and how to follow Him.

예수님의 처음 30 년의 삶에 대해서는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의 죽음 전 마지막 3 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그분을 따르는 방법에 대해 가르치셨다고 말합니다.



He did many miraculous things, like healing the blind, the paralyzed, and the sick or diseased people.

Unlike other "religious" leaders, Jesus sought out the lonely, afraid, and sick.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맹인을 고치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병든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 달리, 예수님은 외롭고 두려워하며 병든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Jesus showed the way to be in a right relationship with God. That it was

not by doing good works, or being born a certain ethnicity, but it was about believing and trusting in Him, since HE was the son of God and through Him was the way to have a relationship with God.

Because of these claims and all that Jesus was teaching the people, the religious leaders of the day hated him. They came up with a plan to get rid of Jesus. They were going to kill him. They arrested Jesus and put him on trial for crimes he did not commit.

예수님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선한 일을 해서도 아니고, 특정 민족으로 태어나서도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주장과 가르침 때문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게 되었고, 그를 없애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체포하여, 하지 않은 죄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He was innocent because He was sinless. The Bible tells us that never once did Jesus, the Son of God, do anything wrong. He obeyed his Father, God, completely and totally.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무죄였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단 한 번도 잘못을 행하지 않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 완전히 순종하셨습니다.



You see; you and I - we are sinners. We are all born into sin because our parents are sinners, and no one here today can honestly stand up and say, "I have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부모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 가운데 태어났으며, 여기 있는 누구도 "나는 단 한 번도 잘못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행동한 적이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가 받는 것은 죽음과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큰 문제입니다.

never thought, said, or done ANYTHING wrong."

The Bible tells us that what we earn because of our sin is death and separation from God. And friends, that's a big problem for us.

보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은 죄와 함께하실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이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죄의 빚은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요? 유일한 방법은 누군가가 우리를 대신하여 그 죄의 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것을 할 수 있을까요? 오직 죄가 없는 분이 우리를 대신해 죽으실 때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For you see, God is holy. And by that very fact, he is unable to be in the presence of sin. So what can we do? How can we make it right? How can our sin debt be paid? The only way that can be is for someone to pay the debt of sin on our behalf. But who can do that? Only One who is sinless, dying in our place can do that.

This is what Jesus did for you and for me. For the whole world.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 그리고 온 세상을 위해 하신 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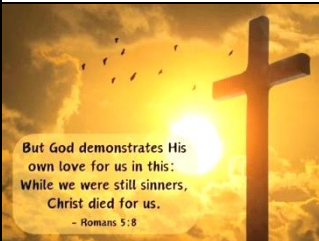
You might be saying, but how? How could He do this?

Remember back to our Christmas story? Jesus was not born of man; he was born of God through a woman. He was not born into sin. And as I told you a minute ago, He never had any sin of His own.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은 사람에게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여자를 통해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태어나지 않으셨고, 자신의 죄도 전혀 없으셨습니다.

So, since He was both man and God, he was able to take on the punishment for all of mankind.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온 인류의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감당하실 수 있었습니다.



But "WHY would He do that?" is maybe the better question.

The answer to that is love.

그렇다면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답은 사랑입니다.

Dear friend, you might not have arrived here in the building feeling very loved or valued today. You may not feel worthy or wanted.

<p>But I have awesome news for you today! The God of the universe knows you, loves you, and made a way for you to have a relationship with Him through the giving of His only Son's life by death on the cross.</p>	<p>친구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가치 없다고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p> <p>하지만 오늘 여러분에게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온 우주의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시고, 사랑하시며,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길을 만드셨습니다.</p>
 <p>That's right. After Jesus' unfair trial, some angry men hung him from a Roman cross, and there he bled and died. His death paid the penalty of sin that we owe. After his death, some of his friends took his body and buried it in a borrowed tomb. There he stayed for 3 full days.</p> <p>Now comes the best part of the story!</p>	<p>맞습니다.</p> <p>불공정한 재판 이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로마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피를 흘리며 죽으셨습니다. 그의 죽음은 우리가 치러야 할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한 것입니다. 그 후, 그의 친구들이 그의 몸을 가져다가 무덤에 장사했습니다. 그는 그곳에 3 일 동안 계셨습니다.</p> <p>이제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p>
 <p>Very early on the Sunday morning, after Jesus had died and been buried, some women came to the tomb. When they got there, they found that the body of Jesus was gone!</p> <p>Can you imagine what would have been going through their minds? They had seen him die, and they knew he was dead. They saw him being laid in that tomb, and now he was gone. I'm sure they wondered, "Did someone take him away? What could have happened?" The Roman soldiers had put a huge stone in front of the tomb so that no one would steal the body, and yet now that stone was moved away, and the body was gone.</p> <p>So, the women stood there, unsure of what to do. Then they saw angels, messengers from God. The angels asked them why they were looking for the living among the dead. The angels told them that Jesus had risen and that they should go and tell the rest of his followers that he was alive.</p> <p>What an incredible thing! This man Jesus, who had told them he was God, had now proven it by doing something supernatural -</p>	<p>일요일 아침 아주 이른 시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묻히신 후, 몇몇 여인들이 무덤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의 몸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p> <p>여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떠올랐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보았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안치되는 것도 보았고, 이제 그분의 몸이 사라진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누군가 예수님을 가져간 걸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하고 궁금해했을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아무도 예수님의 몸을 훔치지 못하도록 무덤 앞에 큰 돌을 놓았지만, 지금 그 돌은 옮겨져 있었고, 예수님의 몸은 사라진 상태였습니다.</p> <p>그래서 여인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천사들은 왜 죽은 자들 사이에서 살아 있는 이를 찾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으니, 다른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전하라고 말해주었습니다.</p> <p>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했던 예수님께서,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p>

that only God can do! He had come back from the dead.

This is the story of Easter!

By Jesus's sacrifice on the cross, we can have the gift of a right relationship with God through his life. Jesus took our sins upon himself and died in our place, then he rose from the dead, defeating death.

Death did not win. It does not have the final word! God won! God always wins! And now people like you and me can experience life fully and forever with God because of his great love for us.

일을 하심으로 그 사실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절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 우리는 그분의 생명을 통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셨다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죽음이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죽음이 최종 승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승리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 덕분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하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If we want to be close to God, it is possible. All the wrong things that we've done that have kept us separate and distant from God, can be forgiven. We can be close to

God and live forever with him if we believe this true story of the Gospel: that Jesus came, that He died, and that He rose again.

We can ask Him to forgive us of our sin and wrongdoing and turn away from it. We can put our faith and hope in Jesus and his work on the cross in dying for our sins, and we can be saved!

Easter is the story of how Jesus died on a Friday, but he actually came back to life when he defeated death by rising again on a Sunday.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가능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했던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진리 곧, 예수님이 오셨고,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와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그것에서 돌이킬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의 사역을 믿고 소망을 둘 수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활절은 예수님이 금요일에 죽으셨지만, 일요일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죽음을 이기고 생명으로 돌아오신 이야기입니다.



Because of that, Christians celebrate Easter on a Sunday morning each spring. Actually, we celebrate it every Sunday.

It's why Christians meet on Sundays each week to celebrate all that God has done for us.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천들은 매년 봄, 일요일 아침에 부활절을 기념합니다.

사실 우리는 매주 일요일마다 그것을 기념합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천들이 매주 일요일마다 모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모든 일을 기념하는 이유입니다.



The story of Easter, the story of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means that Jesus was more than

just a prophet or a good teacher. Jesus proved that He was God by doing something that no one else before, or since, could do - defeating death by rising from the dead.

This miracle changes everything. It can change everything for you. Believe on the Lord Jesus, and you will be saved!

부활절 이야기,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야기는 예수님이 단순한 선지자나 좋은 선생님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그 누구도 하지 못한 일을 하심으로써 그가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이 기적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여러분의 삶도 바꿀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Easter Story Resources

You can find the Easter story in the Holy Bible.

The best places are in the book of Matthew, Chapter 28, verses 1-10; the book of Mark, Chapter 16, verses 1-13; the book of Luke, Chapter 24, verses 1-12; and the book of John, Chapter 20, verses 1-18.

If you would like to read the Bible in your own language, try these apps:

Holy Bible



Bible Gateway



부활절 자료

부활절 이야기는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곳은

- 마태복음 28:1-10
- 마가복음 16:1-13
- 누가복음 24:1-12
- 요한복음 20:1-18

자신의 언어로 성경을 읽고 싶다면, 다음 앱을 사용해 보세요.

Holy Bible



Bible Gateway

